

“광주 대표기업 우뚝...지역과 동반 성장 이루겠다”

27번째 생일 맞은 광주신세계

1995년 법인 설립...예술인 양성·점포 입점 등 '상생' 친환경 관련 활동 활발...“지역 ESG 선도 역할 충실”

“27년 동안 지역민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만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5년 업계 최초로 현지 법인을 세워 광주·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지 올해로 27번째 생일을 맞은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이사(이하 이대표)의 포부다.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 톡톡

광주신세계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관심 속에 새로운 실적을 이어 나가는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해왔다.

2019년에는 전관 리뉴얼을 통해 명품, 해외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총 100여개의 신규 브랜드를 선보인 데 이어 생활전 문관을 도입, 호남지역 쇼핑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총 50여억원을 들여 8년만에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통해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1층 푸드마켓을 맛과 멋이 살아 숨 쉬는 프리미엄 푸드마켓으로 재탄생시켰다.

◇지역 상권과 상생에도 주력

지역 상권과 상생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지역의 유망한 점포들을 입점시키며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다.

오픈 초기 양동시장에 있는 전통 한식 찜구세트 생산업체인 운현궁을 시작으로 2019년에 다르다김밥, 양동통닭, 소맥 베이커리 등 지역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다. 이어 지난해에도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육각커피’와 함평의 디저트 전문 카페인 ‘키친205’를 입점시켜 지역에서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장학사업·예술인 양성 ‘한몫’

지역 장학사업과 예술인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한 해 예산 1억3천만원 상당의 광주신

세계 장학 사업은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까지 총 2천800명이 넘는 고교생에게 30여억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에도 1995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9여억원 규모의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신세계 미술전’ 개최를 통해 지역 신진 예술 작가들의 등용문으로써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미술전은 역량 있는 작가의 발굴·장차 지원을 통해 지역 미술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모전이다. 지난 20여년간 86명의 작가들이 등용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올해 23회를 맞는 광주신세계미술제의 수상작가 시상식은 오는 26일 광주신세계 본관1층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에는 정경자 작가, 신진작가상에는 선민정 작가가 선정됐다.

◇지역 ESG 선도기업의 역할 수행

지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의 역할도 우수히 해내고 있다.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결과로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평가에서 2020년 B+에서 한 계단 오른 A등급사 평가를 획득하며 지속개발 가능한 신뢰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광주신세계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친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고루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올해도 마찬가지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가장 먼저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친환경 관련 활동 적극 전개한다.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슈콤마보니와 노도니트 브랜드 협업을 통해 론칭한 페퍼트병에서 추출한 재생 원사를 사용해 제작한 친환경 신발 팝업 행사를 1층에서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 중 재활용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들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본관 지하 1층에 순환자원 수거 기기 ‘네프론’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올해 3월에 진행한 세계물의 날 기념으로 품양호수공원 정화활동과

같은 환경보호 활동과 매월 격월로 광주천변과 백화점 주변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탄소중립실천을 위해 임직원 대상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9일에 임직원 대상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폭염과 치솟는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경로식당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각각 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 우수 특산물, 중소기업 특매 마켓과 같은 지역과 상생할 수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전남도와 광주신세계가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공급·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협약의 결과물로서 지난 5일에는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기도 했다.

/양시원기자

aT “올 추석 차례상 비용 31만8천원...작년비 2만원 ↑”

폭우·원자재가격 상승 여파 채소류·가공품 6.8% 올라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2만원 가량 더 비쌀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공품 가격 강세가 차례상 비용을 밀어올렸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8천45원으로, 지난 추석 대비 6.8%(2만241원) 상승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추석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지난 24일 기준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2천171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3천920원으로 지난 추석 대비 각각 7%, 6.6% 늘어났다.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25%(9만1천749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지속되는 폭염에 유례없는 폭우가 겹치며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높았으며, 이른 추석 출하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한 사과가 상승세를 보였다.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배 ‘슈퍼골드’ 품종 수확

25일 나주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배 ‘슈퍼골드’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는 ‘신화’, ‘청조’, ‘슈퍼골드’ 등 다양한 국산 배 품종이 출하된다. (농촌진흥청 제공)

밀가루, 두부, 다식 등 가공식품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다만 수급이 안정적인 쌀, 깨, 조기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이번 조사 결과는 농할쿠폰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이다”며 “추석을 맞

아 할인 한도가 1인당 2-3만원으로 상향된 농할쿠폰과 유통업체의 각종 할인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전년 비용 수준으로 성수품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고,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불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시원기자



광주은행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동참

광주은행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3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은행

을 홍보하고, 하반기 채용 정보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개막식 참석 후, 광주은행 부스를 찾아 금융권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직접 상담하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했다. (사진)

광주은행 2022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공고는 9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기수희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뽀뽀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어때의 마음을 만나다 **문화관광시장**

광주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말바위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 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정다기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화순, 순창 등의 주변 시골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적거래 장로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구분 : 인정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9
개설일 : 공식등록일 2005년

- 점포수 : 511개소 (노점상 900여개)
- 시장면적 : 68,712m²(20,685평)
- 주요취급품목 - 수산·건어물, 농산물, 식품·음식점, 축산·건강원, 의류·기타
-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러 행겨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보세요~!

착한가격!

혜택1
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

신선한 상품!

혜택2
은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혜택3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문의** : 062)650-2099